

김민환의 세상읽기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 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반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15%는 가타부타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같은 기관이 그 전 주에 조사한 결과에 비하면 긍정적 평가는 2% 포인트 올랐고, 부정적 평가는 1% 포인트 내려갔다.

지금 박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그 자신이 힘들어 따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면도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 가운데 29%가 박 대통령의 강단 있는 대북정책을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 내세웠다.

이건 박 대통령이 잘 한 점도 있지만, 시대착오적이고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대남 전략을 구사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무엇보다 국정

원 문제를 들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미적거리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분간 평가비중이 낮아질 것이다.

국정원이 이석기 문제를 터트린 것은 대단히 전략적인 것이었지만, 일반 국민은 국정원 문제보다 이석기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까지 침투한 데 대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내부 개혁의 형식을 거쳐 국정원 개혁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국정원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의 인기를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로 코너에 몰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석기 의원 같은 세력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쉽게 타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운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인기가 고공비행을 하게 하는데, 북한이나 이석기 의원만 도운 것이 아니다. 민주당 역시 박 대통령을 돕고 있다. 이걸 오래 전부터 예견된 바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정체를 공천기준으로 내세우며 코드에 맞는 인사를 많이

발탁하고, 실용적으로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테크노크라트 출신들을 대거 탈락시켰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투쟁하는 야당이 되고 싶었는지, 집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야권 능력, 투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공천을 한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했을 경우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그 투쟁 능력을 무엇에 썼을지의 야스런 일이지만, 이제 야당으로서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실용적인 대안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런 민주당은 당분간은 박 대통령 인기의 고공비행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 임하면서 국민통합, 정치 쇄신 및 경제민주화를 국정운영의 3대 지침으로 내세웠다. 이 세 가지 요인을 평가 기준으로 할 경우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준 가시적인 것은 거의 없다. 60%의 인기가란 가담지도 않다. 국민은 공약선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정체를 공천기준으로 내세우며 코드에 맞는 인사를 많이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의 인기는 매우 높다. 꼭 그가 잘 해서라기보다, 북한이 돕고, 이석기 같은 이가 돕고, 민주당이 돕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새누리당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40%인데 반해, 민주당 지지자는 21%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사 결과는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 열췌 10%가 반관자로 돌아섰다면,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의 30%가 민주당을 떠났다는 걸 말해준다.

여론조사에 정통한 사람들은 민주당을 떠난 30%가 투쟁하는 야당을 바라는 사람들 이라기보다 실용적인 대안을 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민주당도 자극을 받았는지, 최근에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중도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의 방향은 제대로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징색 바꾸거나 말 몇 마디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낼 때 때간 민심도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집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시간이 충분 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대 명예교수>

社說

도를 넘어선 정부의 전남도 예산 삭감

내년도 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에서 당초 전남도에 요구한 예산보다 2조5000억 원 이상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및 송정~목포간 호남고속철도, 남해안고속철도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대선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헛구호가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매년 국비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F1대회 지원비 204억 원 역시 전액 삭감돼 적자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전남도가 2014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신청한 사업 건수는 370개에 8조2730억 원에 이르지만 중앙부처가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반영 사업은 363건(5조6894억 원)으로 사업 수는 7개가 줄었고, 금액은 무려 32%(2조5836억

원)나 삭감됐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동력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호남인사 확대 등을 볼 때 지역 공약 이행도 불투명해 이번 국비 확보에서 밀리면 향후 5년간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를 국고사업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고, 증액되도록 해야 한다. 전남도는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국회에 설명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추가 국고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지역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대선 공약이 헛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에 대해 보여주는 진정성이기도 하다.

농수산 보조금 누수, 언제까지 바들 것인가

그동안 솔한 지적을 받아왔던 민간보조금 사업이 아직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되지 않거나 중복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가 최근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감사 결과, 124건을 적발해 이중 잘못 지원된 43억 4000여만원을 회수 또는 시정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80명을 징계처분토록 했다. 농림분야에 이어 민간 보조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에 지적된 케이스를 들여다보면 한심할 정도다. 진도의 한 영어법인은 조합원 7명 중 4명이 부인, 동성 등 가족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병동시설 보조금 8억 원을 받아 챙겼다. 여수의 한 수산물 가공시설 업자는 출자금도 부족하고, 온 가족이 출자해 자격 미달이지만 5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

수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대상 선정부터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고르는 게 업무의 기본이다. 보조금을 지급한 뒤 뒤늦게 감사를 벌이고서야 법적 미비사항이 우후죽순으로 드러났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진행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농수산 관련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치부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지만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이 새나 가면 필수 지원 대상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폐단을 불러온다. 어렵사리 보조금을 받아 생업 유지와 함께 지역산발 발전에 기여해 보려는 사람들이 기회를 상실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은 보다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들은 엄히 단정해야 할 것이다.

기고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의 새 희망!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에게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일을 하면서 미래를 꿈 꿀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꼭 맞는 것이 바로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벌여 지역공동체 복원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역공동체의 중심인 주민이 구성원이 되며, 마을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이 사

업 아이템이 된다. 이러한 마을기업의 성격은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와 협동 정신이 들어있는 계·두레·향약 등의 현대적 복원이라 할 수 있겠다.

예전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부에서 경기진작책을 펼치면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주로 해 왔다. 그런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일자리의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었다. 정부 주도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마을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해 2012년 787개의 마을기업에서 49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일자리도 6533개나 만들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올해에만 121개의 마을기업이 탄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며 활로를 개척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자원과 문화, 전통과 풍습, 역사적 배경과 이야기거리가 사업 아이템이 되고

화훼·축산·수산 등 영농단체나 소비자단체,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등이 마을기업의 주체가 되어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다.

다문화여성이 함께 참여해 앞치마와 장마구니를 만들어 판매하는 광주의 '주월심상봉제사업단', 주민 전체가 참여해 마을에서 생산된 콩으로 고추장·된장 등을 전통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남의 '그린모란마을', 축산농가와 공동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고기를 공급해 축산시장을 살린 서울 성동구의 '마장시장',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농가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해 모두가 이익을 거두는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인 대구 동구의 '안심주민생활 마을기업', 무공해 농산물을 특화해 김치·상향·두부 등을 로컬푸드 형태로 판매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거두는 전북 완주군의 '도깨마을' 등, 일자리도 만들고 공동체도 활성화시키는 마을기업이 수도 없이 많다.

이처럼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도 많다. 지역이 갖는 특수

성과 정체성 그리고 차별성이 마을기업만이 갖는 가장 큰 자원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구성원들의 일자리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어려운 과제다.

안전행정부는 되도록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자립의지가 충분히 존중되면서 마을기업의 사업성과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6월부터 사흘간 순천에서 전국 규모의 마을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지역희망, 마을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3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는 전국 20여 개 마을기업이 참여해 홍보뿐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마을기업 축제다. 이 축제가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에서 개최된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을이, 마을을 위한, 마을에 의한' 마을기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에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종교칼럼

예수님의 황금률



김관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다. 그것이 바로 황금과 같이 귀한 율법 즉, 황금률이요,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해 주고, 신령 써서 처러입고 나온 그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정성껏 봐 주며, 내가 먼저 그에게 칭찬 한마디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에서는 먼저 자기 마음의 바탕을 잘 살펴보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이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즉, '타인에게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자기중심적인 바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즉, '남이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라고 덧붙이십니다. 이는 곧, '일차적으로 타인에게서 받고 싶은 나의 바램을 잘 살핀 뒤 그것을 타인에게 먼저 해 주어야만, 그를 통해 자기 바램이 충족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바램'이라고 하는 욕구가 어떤 식으로 풀어져야 제대로 충족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먼저 해 주어야만 나의 바램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선 행 후 충족 암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먼저 온전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해 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멋지고 예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미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자신이 바랐던 것들이 충족되면서 행복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타인 또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가르치기 위해 준비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또한 회사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여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 편에서 더 노력하고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단점과 장점을 잘 보완해 주고 살리려고 노력할 때, 리더로서의 자질이 내 안에서 생겨나면서 그렇게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 타인을 향한 나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나를 내 스스로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의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하면서 나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갑니다. 물론,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해 주려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좁은 문이요, 비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인을 살림으로써 자신의 삶 또한 충만해 지고, 타인을 구원하려 함으로써 나 자신이 또한 구원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PC 속도 느리게하는 보안프로그램 난립 개선해야

컴퓨터를 가지고 온종일 일을 하는 셀러리맨이다.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른 사이트에 드나들어야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뭔가를 내려받거나 혹은 올려야 하는 일도 자주 생긴다.

그런데 PC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 PC 속도가 느리게 작동하는 경우다.

멀쩡하던 PC가 부쩍 느러지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즉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해당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설정해 놓은 보안프로그램 때문이다. 이 보안프로그램은 방문하는 웹사이트마다 종류도 수십 가지인데다, 해당 사이트에서 뭔가를 내려받거나 혹은 올릴 때,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만 가능하

기 때문에 그걸 안 깔고는 일을 진행할 수조차 없다.

보안프로그램을 가는 곳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PC는 금방 느거기도 변한다. 보안프로그램을 아무리 가볍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같은 기능의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가동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성능의 최적화된 PC라 하더라도 금방 느려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해킹 등에 대비해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은 중요하다.

어차피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처

럼 마구잡이로 만들어 설치할 게 아니라 적절한 프로그램과 권장사항을 맞춰 특정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아니면 난립하는 보안프로그램들을 정리해서 일정한 인증을 해주고 그것만 사용케 하는 방법도 있을법하다. 어쨌거나 모든 사이트에 마치 그물처럼 퍼져 있는 보안프로그램은 우리의 컴퓨터 환경에서 너무나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히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유남규·광주시 동구 계림동

無 等 鼓

광주호 상류는 행정구역상 광주와 담양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한국가사문학관이 있는 지실마을은 담양이지만 삼거리에서 무등산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면 광주시 북구 충효동이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 바라볼 때 건너편 언덕에 환벽당이 자리잡고 있고, 그 밑에 광주호호 흘러드는 창계천이 있다.

1550년 여름 어느날, 14세이던 송강 정철은 순천에 사는 형을 만나러 가던 중 창계천에서 멍을 감게 됐다. 이 때는 나주목사를 지낸 김윤제가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낙향해 환벽당을 짓고, 기거하던 시절이다. 환벽당에서 낮잠을 자던 김윤제는 창계천 용소에서 웅한 마리가 놀고 있는 꿈에서 깨어 용소를 직접 찾아갔

다. 그곳에서 송강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인연으로 송강은 27세 과거에 장원급제할 때까지 환벽당에 머물며 당대의 명현인 김인후, 기대승 등과 교류하며 학문을 배웠고, 김윤제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오동일 사이로 가을달이 사경(四更·밤 1~3시)이 되니 천암만학(千岩萬壑·수많은 바위와 골짜기)이 낮인들 그보다 더 아름다우라~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조대(釣臺)에 세워놓고, 그 아래에 배를 띄워 가는대로 내버려 두니 붉은 여귀꽃, 흰 마름꽃 핀 물가를 어느새 지났는지 환벽당 울소에 뱃머리가 닿았구나.'

송강은 가사 '성산별곡'에서 환벽당과 창계천의 운치를 이렇게 묘사했다.

환벽당 일대가 국가 지정문화재인 명승이 된다. 문화재위원회가 최근 환벽당 일원에 대한 명승 지정 신청을 가결했다는 소식이다. 명승은 자연경관이나 역사 유적 중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대해 지정한다.

환벽당이 명승으로 등 록되면 광주지역 최초의 명승이 탄생하게 된다. 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독논이기 사업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벽당의 명승 지정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창계천의 붉은 여귀꽃은 사라졌지만 환벽당의 배롱나무(백일홍)를 보는 기쁨은 포기할 수 없다.

/장필수 사회팀장 bungy@kwangju.co.kr

명승되는 환벽당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 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 F A X 222-8005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F A X 227-9500 > 디 지 털 실 2200-536 프로젝트 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 F A X 222-0195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02-773-9335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